

범죄현장 체험에 토론까지 “문제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광주 남부경찰 ‘희망동행교실’ CPR 실습·마약 근절 교육도 매달 3일간 진행 희망자 쇄도 27일 솔로몬로파크서 역할극

“아직은 확신이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5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경찰이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인 ‘희망동행교실’에 참여한 흥모(16·고1)군의 소감이다.

최근 학교폭력, 교권침해, 청소년범죄 등 미성년자 범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광주남부경찰서에 마련된 광주경찰청 교육센터 3강의실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고등학생 3명이 열린 토론을 했다.

희망동행교실은 교칙을 위반하거나 범죄 등에 빠진 광주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해 5회째를 맞았다.

학생 선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외부 강사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강의를 나서 학생들에게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흥군은 가장 적극적이었다. 그는 “감정조절력” 강의를 집중했다. 흥군은 제공된 A4용지 절반 이상을 감정조절력 강의 내용으로 뺨뺨이 채워넣었다.

흥군은 “호기심에 잘못을 한 적이 있는데 스스로 조절을 잘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교실’에서는 청소년 흡연이 신체적



25일 광주시 남부 광주경찰청 교육센터에서 ‘희망동행교실’에 참여한 고교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의 강의를 듣고 있다.

·정신적 성장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으며, 제공된 자료를 보고 흥군이 강단에 나서 직접 강의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강의에 앞서 지난 8-9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SNS상 ‘살인연고’ 범죄자가 검거되는 장면이 화면에 비춰지자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다. 화면 속 범죄자가 온라인에 장난으로 올린 게시물만으로 수갑을 차기 때문이다.

흥연문제로 참여한 김모(18)군은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범죄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다”며 “작은 실수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VR 범죄현장 체험강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직접 VR기기를 착용한 뒤 사전에 설정된 가상의 범죄현장에서 화상실 내 설치된 5개의 몰래카메라 발견하기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버스 내 성추행, 교실 내 학교폭력 등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범죄 현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3일간 진행되며 오는 27일까

지 이어지는 ‘희망동행교실’에서는 학생들이 광주 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해 직접 판사, 검사, 피의자 등의 역할을 맡는 모의법정 체험, CPR 실습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6개 학교에서 3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프로그램 참여학교 학생부장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녀온 뒤 비행에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며 “일부 학생은 장래희망에 대한 강의를 듣고 온 뒤부터 드론, 지게차 등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청소년 범죄는 증가 추세다. 청소년들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으로 검거된 것은 지난 2020년 1531건에서 2021년 1058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1199건으로 다시 늘었다. 광주지역 학교폭력 신고건은 2021년 423건에서 2022년 408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9월 기준 43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신고건수를 뛰어넘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zang@

‘천억대 교비 횡령’ 이홍하 흥복학원 설립자 출소

흥복학원 정상화 관심 집중

10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해 대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은 흥복학원 설립자 이홍하(85)씨가 25일 광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2007~2012년 8월까지 대학 4곳 교비 898억원,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6년 징역 9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흥복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임시시사가 선임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흥복학원은 광주 대광여고와 서전여고를 운영하

고 있으며 학교 부채가 43억원에 달한다. 이자를 포함하면 59억원에 이르는 데다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도 진행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흥복학원 정상화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씨가 출소함에 따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흥복학원의 정상화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씨가 수익용 기본재산 21억원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임시시사를 선임하게 된 만큼, 부채를 갚고 임시이사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학원도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학원 정상화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난임부부 “상담받기 힘드네”

평균 일주일 대기해야 가능

광주·전남의 난임부부가 난임·우울증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가량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서울 강서구 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난임부부가 올해 8월 기준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이하 전남센터)에서 상담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평균 시간이 7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난임부부가 난임과 이에 대한 정서적 문제를 상

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는 전국 7개 지역 권역 센터가 운영중이다. 광주·전남에는 지난 2018년 연말 순천에 상담센터가 개소해 운영중이다.

전남센터에서 상담 평균 대기시간은 지난 2019년 2일이었지만 올해 8월 기준 7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난임으로 우울증 등 고통받는 부부가 예약을 하고도 일주일일이 지나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60%는 고립 및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충분한 정서적 지원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김장철’ 12월 광주 음식 폐기물 최다

광주지역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이 12월에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김장철인 12월에 1~11월 대비 1000t 이상 많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음식물류 처리시설인 제1시설(송대)과 제2시설(유덕)에 집계된 양을 보면 10% 가량 차이가 났다.

지난 2021년 1~11월 동안 월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은 9975t이었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1만 959t으로 9.9% 증가했다.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9820t에서 1만 749t으로 9.4% 늘었다. /김단민 기자 kdi@kwangju.co.kr

올 12월에도 1만 339t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장철 배추와 김장용 채소류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주로 배출되는데, 김장철을 맞은 주말 이후 월요일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1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김장철 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했다.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시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배출·수거 및 처리체계가 개편돼 김장철에는 전용용기 또는 김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제봉투(30ℓ 이하)를 이용해야 한다. /김단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독일 라이프치히 교육청 국제교류 ‘물꼬’

미래교육 및 역사 경험 공유 협약

광주시교육청은 25일 독일 라이프치히 하이놀트(Heynoldt) 교육감과 미래교육 및 역사 경험 공유 등과 관련한 국제교육교류협력(MOU)을 체결했다.

이정선 교육감과 하이놀트 라이프치히 교육감은 협력을 통해 원격 영어 공동수업, 역사적 경험 공유(정치·민주), 미래교육 및 교육청 업무 관련 의사교환 등에서 교류하기로 했다.

두 교육감은 또 서로를 양 교육청 명에 교육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지난 4월 이 교육감이 독일 라이프치히 교육청을 방문해 평화통일, 민주시민, 정치교육 등에 대한 교류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교육정책 세미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교육 현안과 직업·진로 교육, 문화·예술 교육, 다문화 교육, 성교육, 미래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약식에 앞서 이 교육감과 하이놀트 교육감은

시교육청 현관에서 독도 수호의 날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대한제국 칙령 41호 및 독도 수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4일 광주에 도착한 하이놀트 교육감 일행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에 담아 외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념비를 참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육 교류가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마약사범 늘었다... 11개월간 610명 검거

광주경찰이 ‘마약 청정구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마약사범 검거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프로젝트 추진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마약 의심 112 신고는 304건으로 전년 동기(7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2 신고에 따른 검거도 26건으로 전년 동기(11건)에 비해 5.1배 늘었다.

이 기간 마약류 범죄 단속 결과 총 610명을 검거했고 이중 10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광주지역도 마약으로부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마약 112신고가 늘어 마약사범 검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광주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는 56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경찰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홍보를 포함한 마약청정구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